

다카야마의 역사: 성하마을(성곽을 중심으로 발달한 도시) 시대

히다 지역에서도 산골 외딴 곳에 위치한 다카야마는 원래 ‘야스가와무라’라고 불리던 작은 마을이었다. 다카야마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혼슈 중부의 산간 지방에 자리한 히다 지역은 오랫동안 정치 권력의 중심에서 고립되어 있었다. 그러나 1550년, 미쓰키 가문이 이 지역의 권력을 장악했다. 미쓰키 가문은 1558년부터 1585년까지 히다를 지배했지만, 가나모리 가문의 당주인 가나모리 나가치카(1524~1608)의 군대에 패하고 말았다.

나가치카는 1588년에 다카야마성을 쌓고 히다를 통치하기 시작했다. 그 후 30년간 국가의 패권을 건 대규모 전투에 참가했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세키가하라 전투(1600년)에서는 승자 편에 서서 싸우기도 했다. 1603년, 전쟁에서 승리한 도쿠가와 이에야스(1543~1616)가 쇼군의 자리에 오르자, 나가치카는 그 포상으로 히다번의 존속을 허락받았다.

가나모리 나가치카는 성하마을(성곽을 중심으로 발달한 도시)과 가도를 정비했다. 성하마을에서 무사 계급은 에나코 강변의 성 근처에 거주했고, 상인 계급은 성에서 멀리 떨어진 미야가와 강가에 살았다. 상인들은 주로 광산이나 별목, 양잠 등으로 생활을 이어갔지만, 더 작은 규모의 산업도 많았다.

1692년, 가나모리 가문의 6대 당주인 요리토키(1669~1736)는 막부의 명령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다. 그로부터 3년이 흐르는 동안 다카야마성은 파괴, 철거되었고 막부가 히다 지역을 직접 지배하게 되었다. 가나모리 가문의 가신들도 모두 히다를 떠났기 때문에, 이 지역의 권력은 에도 출신 관료들과 남은 상인들에게로 옮겨갔다. 에도 막부가 히다를 직접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다카야마는 황금시대를 맞이했다.